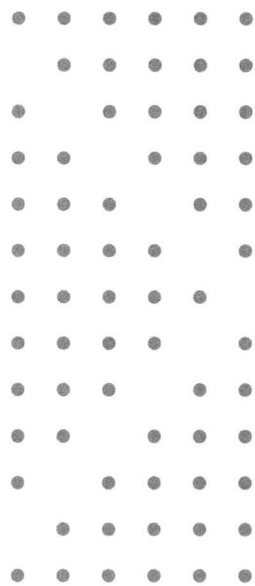


## 세브란스병원의 JCI 인증을 보며

최근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기자는 신문사로 복귀하면서 제일 먼저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세브란스가 미국 병원평가기관인 JCI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JCI의 까다로운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기자는 세브란스가 어떻게 그 인증을 받았는지 궁금했다.

기자는 미국 연수 기간인 지난 4월 시카고 JCI 본부를 병원협회 회장단 일행과 방문한 적이 있다. 거기서 전세계 23개국 125개 병원이 이미 JCI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시아에서만 싱가포르·태국·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에서 65개 병원이 받았다는 것도 알았다.

JCI 측은 최근 10여 년간 미국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과오나 의료사고, 부적절한 진료가 시행된 케이스를 전부 모아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병원 평가 기준을 만든다고 했다. 병원 평가의 최대 목표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했다. 병원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3~4년씩 시범 평가를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글·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시작한다고도 했다. 평가위원의 면면도 상상 이상이었다. 다들 병원 컨설턴트 경력이 20년 이상 된 베테랑인데다 보건학 박사과 의사면허증을 가진 전문의들이 수두룩했다.

이런 정보 탓에 당시 기자는 과연 한국 병원들이 이들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마음 속으로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세브란스병원의 JCI 인증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취재 차 세브란스병원 JCI 인증 준비팀을 면담했다. 내 예상대로 JCI 평가위원들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청소요원들은 수족복 등 피 묻은 세탁물을 만지던 장갑으로 복도를 청소했고, 응급 환자 발생시 급하게 쓰는 약물 상자에는 약물들이 뒤죽박죽 놓여 있었다. 감염 관리의 부실과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된 우리의 현실이었다. 응급실에서 커튼도 치지 않고 환자에게 시술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평가위원이 얼굴을 찌뿌린 것은 우리 병원이 사생활 보호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병원 현장을 방문한 평가위원이 고개를 돌릴때마다 지적 사항이 쏟아져 나오자 수행하던 의료진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한다. 이들의 지적 사항을 빼곡히 받아 적은 노트가 A4 용지로 80여장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브란스병원이 첫 평가는 평가 항목 1033개 중 50%도 만족하지 못하는 낙제점 이었다는 것에 기자는 먼저 놀랐다.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하던 세브란스병원이 이렇게 진료 운영 시스템 곳곳이 부실할 줄 몰랐을까, 병원 운영진에서는 장탄식이 절로 나왔을 것이다. 과연 세브란스병원이 JCI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결국 세브란스병원은 JCI 인증을 받았다. 기자는 JCI 인증 준비팀이 쓰던 회의실에 가봤다. 한 쪽 벽에 2개의 커다란 벽시계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한국의 시간을 또 하나는 JCI 본부가 있는 시카고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JCI와 협의를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기준이 이미 JCI기준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JCI 기준에 부합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보니 과 사무실의 한 벽이 이것으로 다 채워졌다는 얘기도 인상 깊었다. “우리 부서가 낙제점을 받아 병원 전체

인증에 영향을 미쳐서는 창피해서 병원 못 다닌다”며 여러 부서가 경쟁적으로 JCI 인증 준비를 했다고 하니 세브란스병원이 얼마나 일심동체로 이 일을 준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고가 의료 장비로 무장하고 환자를 대하는 친절 서비스는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평을 듣는 한국의 대학병원들. 임상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병원 운영 시스템을 미국 기준으로 적용하다보니 허점 투성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의 JCI 인증을 계기로 한국 병원들이 환자 안전 시스템과 규범화된 진료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KHA**

